

지역 소식통

정읍시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 9월까지 고혈압·당뇨교실 운영

정읍시보건소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9월까지 고혈압·당뇨교실(이하 고당교실)을 운영한다.

고당교실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고혈압과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을 주제로 질환 교육과 함께 운동요법, 식이요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소는 이를 통해 정읍지역 사망 원인 2위인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고 예방법을 전파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는 "2분기 고당교실은 5월 16일 진행될 예정이고, 이와 별개로 6월 14일에는 영양교육과 더불어 고혈압과 당뇨 식단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시식회도 개최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고당교실에는 고혈압과 당뇨 질환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정읍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방문보건팀(☎063.539-60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제경찰서, 어린이 사고예방 교통캠페인 벌여

김제경찰서(서장 황대규)는 지난 2일 시내권 중앙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8일 금구초등학교를 끝으로 개화철, 민·관·경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김제시민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장장 1개월 동안 7개소 초등학교에서 개최된 교통안전캠페인에는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단체에서 총 750여명 이상이 참여했다.

황대규 김제경찰서장, 김제시 안전개발국장,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 만경읍장, 금산면장, 각 학교 교장·교감, 학교 관계자 등 김제 각 기관·단체 모두가 함께하는 뜻깊은 캠페인이었다.

7차례의 캠페인을 개최하는 동안 캠페인 참가자 모두가 능동적으로 등굣길 학생 한명 한명에게 교통안전 홍보물 연필과 자를 배부하며 무단횡단 금지, 횡단보도 3원칙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통안전 홍보를 전개하였다.

황대규 김제경찰서장은 "이번 교통안전 순회 캠페인이 끝이 아니라 연중 아이들이 더 안전한 김제민들이 될 위해 캠페인활동을 개최하고 교통안전 순회 교육, 스피커를 내 3대 교통안전 위반 행위 집중 단속, 시설 개선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제=곽노태기자

부안군, 저출산 해소 발벗고 나서

출산장려금 대폭 확대·우리아가 등록증 발급·아기 출생 가정 방문

부안군이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한 데 이어 우리아가등록증 발급 등 다양한 저출산 해소에 발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부안군은 저출산 해소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우리아가등록증 발급과 출생기념 반지, 출산선물, 오복주머니 전달 등 읍면별로 다양한 저출산 해소 시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부안군은 지난해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100만 원을 신규로 지원키로 하고 다섯째 아이는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13개 읍면에서 우리아가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우리아가등록증은 가족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복하는 아이 출생 축하 메시지를

지키고 신상을 기재해 소중한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려고 도입했다. 앞면에는 아이 성명과 출생일, 주소, 사진이 삽입돼 있으며 뒷면에는 예방접종 표와 태명, 태어난 시간, 몸무게, 키, 락, 혈액형, 부모성명, 부모바람 등이 적혀 있다.

보안면에서는 주 민자위원회와 인구 늘리기 추진위원회 등 관내 사회단체들이 아기 출생 가정을 방문해 출생 기념 반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출생아에서는 직원들의 회비를 통해 출생가정에 기저귀와 젖병, 베네티지교리 등 3만 원 상당의 출산선물을 지원한다.

부안군 관계자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저출산 해소 시책과 함께 나누기 근능장학재단 활성화 등 아이 낳고



보육하고 교육하기 좋은 부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동학농민혁명 제123주년 고부봉기 재현행사

정읍시, 시 등 발생으로 2월 15일서 연기 개최

동학농민혁명 제123주년을 기념하는 고부봉기 재현행사가 28일 이평면 예동마을과 말목장터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정읍시가 주최하고 고부농민봉기재현행사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행사에는 김생기 시장, 유진섭 시의회의장, 이승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등 동학 관련 단체와 옛 고부군 관할 구역이었던 이평과 고부, 덕천, 영린, 소성, 정우 등지의 지역주민 400여명이 참여했다.

시와 추진위는 "매년 고부 봉기일인 2월 15일에 재현행사를 가져왔으나 올해는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으로 연기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부봉기 재현행사는 전통준을 중심으로 한 고부군의 동학교도와 농민들



이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항거, 사발문 거사계획에 이어 말목장터에 집결 결의를 다진 후 고부관아를 점령한날인 1894년 음력 1월 10일 당시 양력인 2월15일에 맞춰 열린다. 현장에서는 이평면마을로 구성된 배들농악단 풍물놀이와 정읍시립국악단의 공연이 식전에 열렸고 기념식과

재현행사가 진행됐다. 재현행사로, 예동마을에서 출발한 걸공과와 이관 움직임을 전해들은 인근의 마을 사람들이 말목장터에 집결한 후 전통준 장군이 사발문을 낭독,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과 혁명의 당위성을 알렸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 환경조성 위한 홍보 캠페인 '호우'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개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내 혈압·혈당 숫자 알기와 함께 건강증진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열어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2015년 지평선축제에서 건강한 금연도시 김제를 선포한 이후 금연거리

금연아파트 지정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왔으며 올해 병풍 금연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김제 전통 시장 5일장을 이용 보건소 직원 및 관련 단체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며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김제시 보건소는 건강증진 환경조성을 위해 월 1회 집중 홍보의 날을 운영하고 홍보 책자 및 홍보물을 배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제=곽노태기자



정읍시 재능나눔 축제 '성황'

(사)정읍시자원봉사센터주최로 마련된 제9회 정읍시 재능나눔 축제가 2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시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행사에는 김생기 시장과 유진섭 시의회의장, (사)전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 이사장 등 많은 내빈도 참석해 관계자들과 참가 시민들을 격려했다.

재능 나눔에는 양·방 의료봉사, 한국전력공사(전기발전기), 목공 체험, 눈시팅안경, 귀반시요법, 이 미용봉사, 다도 및 전통예절 체험 등 21개 단체가 참여했다.

행사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특히 정다운요양병원과 정읍시립노인병원의 양·한방 의료봉사, 전북

과세대 안경광학과의 돌보미 제작 지원에 많은 보였고 자녀와 함께 한 가족들은 원예활동체험 나눔과 초콜릿체험, 네일아트 부스 등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첫 행사 때부터 참여했다는 한 시민은 "병소 접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한 자리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아이들도 매우 즐거워하여 매년 가족 모두가 행사장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생기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어느덧 5화계를 맞은 재능나눔축제가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하여 정읍이 재능 나눔 기부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해풍 노을감자 4월부터 본격 수확

청정해역 머금고 자란 부안군의 고부가가치 소득작목으로 자리잡은 영안면어리 부안해풍 노을 감자가 지난 13일 계획된 송정호제 농가를 시작으로 4월부터 본격 수확된다.

부안해풍 노을 감지는 올해 동진면과 계 화면을 중심으로 2200여 동(214ha)의 시설하우스에서 3740여 톤이 수확될 것으로 전망되며 80억 원 가량의 농가소득이 예상된다.

부안해풍 노을 감지는 벼 재배 소득보다 3배 이상 높아 동계 소득작목

중 효과작목이 되고 있다. 부안해풍 노을 감지는 알칼리성 사질 토양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맛이 뛰어나며 껍질이 얇고 저장성이 좋아서 서울 가락시장 출하 경매에 고품질의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

특히 성분분석 결과 간직지 해풍의 영향으로 타 지역에 비해 마그네슘 등 무기질 함량이 높고 칼륨 성분이 많아 맛은 좋고 열량은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가 있다.

/부안=이옥수기자

김제시, 시민 1일 명예실과장제 운영

김제시(시장 이진석)는 28일 김제시청 및 시 주요 사업장에서 시민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1일 명예실과장제」를 운영했다.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명예실과장제는 19개 읍면동에서 선정된 주민들이 하룻동안 김제시청 명예실과장으로 위촉되어 28개 각 실과를 체험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 점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28명의 명예실과장은 이진석 김제시장과 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발전적 토의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으며, 시장 주요 현안사업 브리핑 청취에 이어 새민금 내부개발 현장 등 시 주요 사업장을 방문 생생한 현장행정 체험에 참여하였다.

/김제=곽노태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and Gangsanmyeongju products.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promotional text. The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also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